

# 정읍시, 재난지원금 지원 행정력 집중

### 전북도 다음달 5일부터 한달간 모든 도민에 1인당 10만원씩 이·통장이 마을 찾아 지급

정읍시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전북도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읍시는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을 7월5일부터 8월6일까지 시민 모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은 21일 기준으로 정

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와 '재외국민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 이민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자격자에게 1인당 10만원씩 전북은행 무기명 선불카드 지급된다.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침에 따라 정읍시에서 발급받은 선불카드는 지역 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오는 9월30일까지 지역 내 가맹점에 서만 사용해야 한다. 국가재난지원금 지급 시 사용 제한 업종과 동일한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정읍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으며,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재난지원금도 신속하게 지

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의 편리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기본으로 하고, 최대한 공무원과 이·통장이 마을 현장을 찾아가 지급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접수처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철저 등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지원할 계획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철저한 준비로 시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와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익산시,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다각화

### 드림카 구입 최대 1000만원 지원 창업 컨설팅 아카데미 운영도

익산시가 차량을 이용해 창업하는 청년을 위해 '드림카 구입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등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다변화한다. 드림카 구입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차량 활용 업종 창업 시 50%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푸드, 커피, 플라워, 출장세차, 배달·물류 등 차량을 활용한 업종을 창업하는 청년들이다.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 이내의 청년 창업기업 등은 지원 가능하며 총 1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7월 11일까지로 개인·법인 모두 가능하며 시 홈페이지와 익산청년센터 청소년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www.youthforest.iksan.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하는 아카데미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외식 창업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롯데마트와 손잡고 청년외식창업자에게 각종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시설비 최대 2000만원과 임대료 매월 50만원(1년)을 지원하며 롯데마트는 보증금, 관리비, 카드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같은 혜택을 통해 현재 청년외식업체 3곳이 개점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으며 2곳을 추가 모집 중이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만월표 검정 고무신'을 아시나요?

### '경성고무' 노동자·남초등 야구부 기억 군산시, 미원광장에 조형물 설치

군산 미원광장에 검정 고무신 조형물이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고무신 조형물은 군산시 흥남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옛 미원동에 위치했던 경성고무의 '만월표' 고무신을 모티브로 과거 고무신을 만들었던 도시노동자와 고무신을 신고 야구 연습을 해온 남초등학교 야구부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세워졌다. 조형물은 야구 홈베이스 위에 3.5m 높이로 검정 고무신 한 켤레를 형상화했다. 경성고무는 일본에서 온 사업가가 세운 고무신공장을 이만수 사장이 인수해 1932년에 설립한 회사이다. 동그라미 안에 '만월(滿月)'이라고 새겨진 만월표 고무신을 생산했는데 전국 각지에 특매점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하지만 1983년 선전에 완전히 매각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창업주인 이만수씨의 아들 이용일씨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초대 사무총장을 지내고 군산지역에 야구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초등학교 4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에 야구부를 만들기도 하는 등 야구사랑이 대단했다. 이기만 군산시 도시재생과장은 "지역 주민들과 화합하고 친목을 다지며 주민 주도로 이루어진 도시재생의 결과물을 볼 수 있어 뜻깊다"며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해왔던 이곳 미원광장을 시민들이 많이 찾아와 옛 기억



군산시 미원광장에 옛 경성고무 만월표 고무신 조형물이 설치됐다.

과 추억의 공간으로 느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흥남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3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을장터 개설과 미원광장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한 주민참여 소규모 재생사업이다. /군산=박기섭 기자 nogusu@kwangju.co.kr

# 지리산 고랭지 양파 대만 간다

### 48t 첫 수출...8월까지 600t 선적

남원의 지리산 고랭지에서 생산된 양파가 대만 수출길에 올랐다. 이 양파는 지리산 자락인 남원 주천면과 이백면, 운봉읍 등지에서 생산된 것으로 뛰어난 품질을 인정받아 수출이 성사됐다. 23일 48t이 선적됐으며 8월 초까지 모두 600t가량이 수출될 예정이다. 7월 중순부터는 미국에도 수출될 예정이다. 남원시는 2014년 남원농협 양파공선회를

조직해 처음으로 수출을 시작했으며 2019년에는 고죽동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준공하고 최신식 양파선별기를 도입해 대량생산·공급 체계를 확보했다. 또 춘향골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도 2019년부터 대만, 베트남, 미국에 280t을 시작으로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수출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양파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울며 처음으로 대만으로 수출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게 됐다"고 밝혔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고창군, 청보리밭2지구서 유채 15t수확



고창 청보리밭2지구 유채수확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수확한 유채를 살펴보고 있다. <고창군 제공>

### 농가소득 5000만원 추가 창출

고창군이 공음면 청보리밭2지구 5ha에서 유채 15t을 수확해 5000여만원의 추가소득을 창출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유채꽃을 선보일 수 없어 아쉬움을 남겼지만, 다행히 그간 좋은 날씨의 영향으로 질 좋은 유채 종자를 수확했다. 지난 23일 유채 수확 현장에는 진영호 청보리밭 유채재배 추진위원장, 김광수 국립식량과학원 바

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농업연구사를 비롯해 지역 유채재배 농가 등이 참석했다. 수확한 유채 종자는 정선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경관지구 조성사업 추진시 유채재배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유채 수확을 계기로 경관농업에 머무르지 않고 내년에는 유채기름용, 조사료용 등 새로운 농가소득의 수익창출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장류산업 메카' 순창서 간편 청국장 제품 출시

### 발효미생물진흥원, '청순 바이즈' '순예담찌개용청국장' 2종

한국인의 장 건강을 지켜줄 간편 청국장 제품이 '장류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순창에서 출시됐다. 순창군은 순창청국장을 기반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형 청국장 '청순 바이즈'와 간편하게 끓여 먹을 수 있는 찌개용 청국장 '순예담찌개용청국장'이 출시됐다고 밝혔다. 제품을 개발한 곳은 '아로니아 청국장'과 '청국장 아이스크림'을 개발해 화제를 모았던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다.

청국장은 항염, 항비만, 장기능 개선 등의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우리나라 전통식품이다. 진흥원은 순창고추장익는마을과 협력해 '청순 바이즈'를 농업회사법인순창장류와는 '순예담찌개용청국장'을 함께 만들어냈다. 진흥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황숙수 순창군수는 "장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먹기가 어려우면 판매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개발된 제품은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는 측면에서 단기간 10억



원 이상의 매출도 바라보고 있어 관련 식품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손해보험협회